

장수군, 내년도 예산 2763억원 편성

올해보다 103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분야 비중 커져

장수군이 2017년도 예산안을 올해 2,660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한 2,763억 원으로 편성하고, 지난 21일 장수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04억 원이 증가한 2,4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327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62억원(2.5%), 세외수입 85억원(3.5%), 지방교부세 1,209억원(49.6%), 조정교부금 20억원(0.8%), 보조금 825억원(33.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35억원(9.7%) 등으로 2,436억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27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3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42억원으로 총 4개 특별회계에 327억원이 편성됐고, 기금 중 7개 기금으로 내년 기금운영 규모는 186억원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수레드푸드융복합센터 조성사업 12억원 △청사건립사업 36억원 △계남양돈단지 매입사업 3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9억원 △포니랜드 조성사업 47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8억원 △소하천 정비 35억원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12억원 △장수식품클러

스터 육성 19억원 △무통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10억원 △순환형매립시설 정비 및 조성 15억원 △폐기물처리 소각시설 설치사업 16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 31억원 △장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19억원 등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실현, 6차 융복합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등 균형 정책을 가시화해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으며,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현안적인 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2017년도 본 예산안은 군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 속 또 다른 지구' 칠레 천체 사진전 내일부터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서 개최

천체 사진작가 황인준의 "지구 속 또 다른 지구 칠레 천체 사진전"이 오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전시실(1~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갈자리 인공 은하수, △고목과 은하수, △에타카리나 성운 △IC4628 새우성운 △B72 암흑성운 인공 △NGC2070 독거미성운 인공 등 칠레에서 성운과 성단을 촬영한 10여 점의 사진이 전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황인준 작가는 2009년 천체 사진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과학동아와 프레스시앙, 월간 포토박스, 줌인 등에 사진이 실리며 천체 사진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저서로는 천체 사진집 "별빛방랑"이 있다.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 관계자는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을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기회"라며 "낮에는 반디별랜드 공룡박물관에서 다양한 공룡들과 3D 영상도 관람해보시고 밤에는 별자리 사진과 함께 하늘에 별을 직접 관찰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길"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협 공선회 통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제안 이해양 의원 "천문과학관 증축, 부실공사 우려"



이성수 의원 | 이해양 의원

무주군의회 이성수 의원은 농특산물 포장재를 원하는 농가수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심지어 보조비율은 매년 10%씩 줄어드는 거꾸로 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중 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농산물 박스값이, 포장거래, 타 지역 유통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민·행정·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주군구식으로 무분별하게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농협 공선회를 통한 과감한 투자로 공선회 가입 납품 증가, 농협의 시장 경쟁력 강화, 가격 결정권 강화, 높은 거래가 형성, 농가수입 증가

의 선순환구조 시스템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적극 제안했다.

이해양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큰 설계로 인해 반디별랜드 천문과학관 증축공사가 부실공사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는 11억원인데 반해 1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 설계에 맞춘 반디별랜드 천문과학관 증축공사는 현재 공정을 20%가량이 진행된 상황이나 예산한도에 맞춰 8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설계에서 감하다보니 관측시야를 확보하는데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번 증축하면 십수년을 사용해야하는 것이니만큼 의견적인 미관보다는 천문과학관의 본래 목적에 초점을 맞춰 관측

을 우선으로 시공을 하고,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2015년에 증축공사를 하는데 이어 2016년에 재차 예산을 편성해 무주종합복지관 식당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 돼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최초 설계부터 꼼꼼하게 사업현장을 살펴볼 필요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예결특위 워크숍 개최

3차 추경예산 심사 돌입

진안군의회(의장 박병석)는 23일 산악초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대한 준비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제 231회 임시회에서 위원장에 신갑수

위원을, 간사에 김광수 의원을 선임하여,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후, 8일을 끝으로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 심의를 하고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의 우

선순위,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

신갑수 위원장은 "워크숍을 통한 예산심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인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체계적이며 현미경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30일까지 '뿔감 나누기' 대상자 선정

무주군은 '사람의 뿔감 나누기'를 위해 대상자 파악에 나섰다 밝혔다. 사람의 뿔감 나누기는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겨울철 난방용 뿔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30일까지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내달 5일부터는 집집마다 방문해 뿔감을 전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취학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정, 생계지원대상자 등의 취약계층과 마을회관 등 이용자들이 많은 시설들이다.

군에 따르면 "사람의 뿔감 나누기"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뿔감은 모두 임도변과 계곡부 등 재해우려구역 내에서 집중 수집한 산물로, 무주군은 현재 150㎥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대당 집계 차로 한 차(5㎥)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환경산림과 산림보성 담당 김승준은 "버려지는 잡목들이 뿔감 연료가 절실한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힘이 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 군이 나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공동주택 안전점검

완주군은 기존 공동주택, 시공현장,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화재예방과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6 공동주택단지 동절기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폭설 피해예방 및 강추위로 인한 풍파 예방과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 단지내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 보수·보강, 동절기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 안전점검대상은 기존 공동주택 43개 단지, 시공 중인 공동주택 3개소, 공사중단 현장 2개소로 24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32개 단지에서는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관리주체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11개 단지와 시공 중·공사중단 현장 5개소는 완주군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점검한다.

신세계 도시개발과장은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화재 발생요인을 제거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인구증가 전망 내년도 526세대 신규 아파트 입주

완주군 인구가 올해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520여 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인구증가에 힘을 보탬 것으로 보인다.

23일 완주군은 지난 10월말 현재 완주군 인구는 9만5529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말 9만5303명보다 226명 늘어난 것이다.

도내 지자체 인구 전반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완주군은 올해에서도 매달 28명 증가세를 구현하고 있다. 이 같은 완주군 인구 증가세는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올 12월과 내년 1월 사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신규 아파트의 입주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입

주 예정 아파트 현황(2016년 12월~2017년 2월)'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에서는 내년 1월 봉동읍 제내리에 위치한 '제일 오투그라데'가 입주를 시작한다.

입주 규모는 총 526세대로, 60㎡ 이하 207세대, 60~85㎡ 319세대 등이다. 제일 오투그라데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면 완주군 인구는 300명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봉동읍의 경우 올 9~10월 아파트 입주(광신 프로젝트)로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인구증가세가 완주군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 인구 10만명 시대에 대한 기대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30일 무주읍사무소에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현장상담창구 운영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금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03년부터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토지매수사업은 중부권 450만 시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수변구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소유자가 매도신청하면 국가가 매수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등 녹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토지매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1월 중 신탄진동 주민센터(24일)와 무주읍사무소(30일)에서 거주지역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현장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덕구 신탄진동과 무주읍 대부분은 농촌지역이며 고려화에 따른 노년층

증가로 인터넷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토지소유자들의 연령 특성을 고려해 현장(주민자치센터)에서 토지매수 제도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매도 신청을 원할 경우 현장에서 바로 구비서류를 발급 받아 토지매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덕구와 무주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매도신청과 매수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토지매수 현장상담 창구와 같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토지매수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강화와 상수원관리지역내 수질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자원봉사자 격려 자리 마련

진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용진)는 23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점검하고 상호 격려하는 자리를 군청 광장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헌신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왕중왕 손뜨개질봉사단 내우숙(여, 55)씨 등 유공자 29명을 시상함으로써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했다. 또한 관내 종교 단체 등 30개의 기관·단체와 함께 '2016 진안고원길장대축제'를 진

행하여 사람의 김장김치를 관내 1,000가구의 저소득층 및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진안고원길장대축제는 종교를 초월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30개의 지역종교단체와 유관기관이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날 부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공존하는 참된 봉사, 행동을 시상으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며, 행동을 실천하는 유익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위한 재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기획

진안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새누리' · '운광' 2개 품종 선정

진안군은 20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새누리'와 '운광' 2개 품종을 선정했다.

군은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민단체, 농협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7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선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벼 매입품종을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새누리, 운광벼는 병해충과 도복에 강해 재배하기가 편리하고, 종자 확보가 유리하여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20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으로 선정된 '새누리'와 '운광' 종자확보 및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및 적기수확 등 체계적인 재배관리와 교육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자원봉사종합센터, 김장나눔 봉사

장수군 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오영하)는 23일 '2016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관내 유관기관과 자원봉사 단체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치 500kg을 한 박스씩 소외계층 50가정에 10kg씩 담아 온정을 나눴다.

관계자는 "앞으로 사람의 김치나누기 봉사를 계속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훈훈한 우리지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완주-김천 민주평통자문회의 교류

완주군 민주평통자문회의(협의회장 정완철)와 자매결연도시인 김천시 협의회(협의회장 최용남)는 23일 영호남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2016 영호남 민주평통자문회의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94년 시작 올해 22년째 이어오고 있는 교류행사는 해마다 번갈아가며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관광 답사, 지역특산물 교환 등으로 영호남 상호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는 김천시 민주평통 회원 20여명이 완주군을 방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평화공존의 바탕이 되는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역량 강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후 하이트맥주공장을 방문하는 등 민주평통 지도자간의 우정을 다졌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경찰, 집배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지난 21일 오후 장수우체국 3층 회의실에서 우체국 직원 및 집배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통안전교육은 2016년 하반기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앞서 우체국 직원 및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발생 사례 및 도로교통법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이륜자동차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모 미착용 교통사고, 이륜자동차와 보행자간 교통사고 등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한 경각심을 고취 및 안전한 집배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교통안전 교육이었다.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집배원은 업무상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항상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바, 평소 집배원을 상대로 사전 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